

전체 회합

11/ 5 (월) – **11/ 6** (화)

2012 The 3rd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Malaysia

Name	Organization
State of Melaka	
HUSIN, Md Yunus	Chairman, Local Government and Environment State Committe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Name	Organization
Aurora Province	
CASTILLO, Bellaflor Angara	Governor of Aurora Province
Municipality of Baler	
ANGARA, Arturo Javier	Mayor of Municipality of Baler

Republic of Korea

Name	Organization
Gyeonggi-do Province	
PARK, Duk Jin	Section Chief, Gyeonggi Province Talent Development Institute
Chungcheongnam-do Province	
NAMGUNG, Yeong	Director General of Economy and Trade Office
Gongju City	
LEE, Tai Mook	Citizen Director
Seosan City	
KIM, Young Je	Director, Planning & Inspection Office
Buyeo County	
LEE, Sang Joon	Vice County Chief
Jeollanam-do Province	
SONG, Tae Heyun	Chief, Tourism Policy Division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Name	Organization
Thua Thien Hue Province	
NGO, Hoa	Vice Chairman, Thua Thien Hu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Phu Tho Province	
HOANG, Dan Mac	Chairman, Phu Tho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Viet Tri City	
LE, Van Hong	Chairman, Viet Tri City People's Committee

Japan

Name	Organization
Fukushima Prefecture	
MURATA, Fumio	Vice Governor of Fukushima Prefecture
Niigata Prefecture	
SHIBUYA, Yuko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Governor's Policy Bureau
Toyama Prefecture	
KOSHIRO, Shinji	Deputy Director General, Tourism & Regional Promotion Bureau
Fukui Prefecture	
TAKEUCHI, Naoto	Executive Officer, Department of General Affairs
Yamanashi Prefecture	
KOBAYASHI, Akira	Director General, Tourism Department
Nagano Prefecture	
KONDO, Hiromu	Associate Section Chief, Planning Division, Planning Department
Gifu Prefecture	
FURUTA, Nahoko	Executive Director, Tourism Exchange Promotion Office

Name	Organization
Shizuoka Prefecture	
OSUGA, Yoshiro	Lieutenant Governor of Shizuoka Prefecture
Mie Prefecture	
SUZUKI, Eikei	Governor of Mie Prefecture
Kyoto Prefecture	
NAKANO, Yusuke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General Affairs
Wakayama Prefecture	
NISAKA, Yoshinobu	Governor of Wakayama Prefecture
Tottori Prefecture	
HOKKYO, Makoto	Head Administrator
Shimane Prefecture	
MIZOGUCHI, Zembee	Governor of Shimane Prefecture
Tokushima Prefecture	
IIZUMI, Kamon	Governor of Tokushima Prefecture
Kagawa Prefecture	
TENKUMO, Toshio	Vice Governor of Kagawa Prefecture
Nara Prefecture	
ARAI, Shogo	Governor of Nara Prefecture
Tagajo City	
KIKUCHI, Kenjiro	Mayor of Tagajo City
Niigata City	
TSUKADA, Keisuke	Vice Mayor of Niigata City
Dazaifu City	
INOUE, Yasuhiro	Mayor of Dazaifu City
Nara City	
NAKAGAWA, Gen	Mayor of Nara City
Tenri City	
MINAMI, Keisaku	Mayor of Tenri City
Kashihara City	
MORISHITA, Yutaka	Mayor of Kashihara City
Gose City	
HIGASHIGAWA, Yutaka	Mayor of Gose City
Ikaruga Town	
IKEDA, Yoshinori	Deputy Mayor of Ikaruga Town
Asuka Village	
MORIKAWA, Yuichi	Mayor of Asuka Village
Koryo Town	
HIRAOKA, Hitoshi	Mayor of Koryo Town
Nara Prefectural Assembly	
OKA, Shiro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Economy and Labor
FUJINO, Yoshitsugu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Education and Daily Life
OKUNI, Masahiro	Vice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General Affairs and Police
KOIZUMI, Yonezo	Vice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Public Welfare
IOKU, Misato	Vice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Economy and Labor
FUJIMOTO, Akihiro	Member,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General Affairs and Police

기조 강연

‘동아시아 정세와 지방정부의 대응’



이시하라 노부오

재단법인 지방자치연구기구 회장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일찍이 세계 경제를 이끈 미국·유럽이 고전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발전에 힘쓰는 일은 세계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정세는 낙관할 수 없다. 일본·중국·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 협력해 왔으나, 현재 영토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정부 레벨에서 각 지역의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교류해 나가는 것이 중앙 레벨의 긴장완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 의미에서 본 회합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공통 과제의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진행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 경비의 증대이다. 일본의 사회보장사업 실시 주체는 주로 지자체로, 그것이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재정도 악화시키고 있다. 또 경제 성장을 둔화와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 고용 문제이다. 새롭게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층을 위한 고용 확보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격차 문제 또한 심각하다. 지역 간 격차, 사회적 격차, 세대 간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경제 전체의 성장이 감속하는 가운데 도쿄 일극 집중의 가속으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어 지방의

고용 확보를 어렵게 하고 지자체 자주 재원을 약체화하고 있다.

일본의 지자체는 재원, 특히 재원의 기본이 되어야 할 지방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 인데 반해, 행정 지출 비율은 4:6으로 그 반대이다. 이러한 세출과 세입의 불균형에 대해 늘 불만을 느끼고 있는 지방정부는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세원 편제로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둘은 국민의 조세 부담이다. 국민소득에 대해 45% 전후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조세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국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에 걸맞은 부담을 요구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의 확실한 실행과 새로운 세제개정이 필요하며 그 중 지방세의 절대량을 늘려 갈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 ‘지방 소비세 강화’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지방 소비세는 사회보장 재원이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경제의 지역 간 격차로 지방의 재정 수요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지방세로 조달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일본에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수요와 재정 수입을 매년 객관적 수법을 통해 측정하여 그 차액(부족)을 보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계의 재정 제도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제도로 동아시아 각 지방정부에 참고가 될 것이다. 단, 지방교부세 제도는 그 대부분이 적자 국채로 조달되고 있어 그 재원에 큰 불안을 안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무행정 운영에 관해 정부와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는 ‘정부·지방 협의회’가 2011년부터 시작됐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제도 개정은 반드시 이 협의회에서 논의·결정된다. 이것도 동아시아 각 지방정부에 참고가 될 것이다.

이번 지방정부회합에서 공통 과제를 논의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일은 각 지역 행정의 유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중앙 레벨과의 어려운 관계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회합이 동아시아의 국민 차원 화합에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다.

그룹 토의

테마 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참가 지방정부	한국 : 충청남도 서산시 일본 : 도쿠시마현, 나라현, 니가타현 니가타시,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나라현 덴리시, 나라현 이카루가초
모더레이터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테마별 회합 결과 보고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저출산·고령화’라는 공통 과제를 가진 동아시아 각국은 스웨덴형 사회보장(정부의 서비스 급부)을 참고로 하여 그것을 초월한 새로운 동아시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고용에 중점을 두어 고령자와 여성이 계속 일하면서 생활 곤란자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또 사회보장 대상을 고령자에 국한하지 말고 청년과 여성도 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육아지원과 청년 취업 지원의 강화가 구체적인 예이다.

동아시아 모델 구축의 기본 방향은 ① ‘잡질의 보장’ (고령자에게 단지 연금과 휴양을 부여하고 격리)에서 ‘날개의 보장’ (여성·청년·고령자 모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날개를 부여)으로 ②정부 중심의 현금 급부에서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급부로 ③사회보장 제공 주체의 다양화 ④ ‘공정한 복지국가’ (후세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세대 간 공평을 중시) ⑤복지 서비스와 기술개발의 융합이다.

또 모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도 요구된다.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 고령자에 대한 지역사회 참가, 생활 곤란자에 대한 사회참가와 자립 촉진, 현역 세대에 대한 고용 안정 등의 대책이 그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미혼 청년 및 독거 고령자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과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새로운 협조 관계의 구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방향성을 토대로 테마별 회합에서는 각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발표되었다.

<고령자 지원>

-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나라현, 시모이치초)
- 민간자본의 개호서비스시설 건설에 보조금과 장려금을 교부(장쑤성)
- 쇼핑센터가 운행하는 커뮤니티 버스에 보조금을 교부(다자이후시)

<육아 지원>

- 다양한 보육 서비스로 출생률 향상(니가타시)
- 모자 보건사업을 충실화하여 육아 세대를 지원(덴리시)
- 불임 치료비와 법정외 접종을 마을이 단독 보조하여 의료·위생을 충실화(이카루가초)

<의료 충실>

- 의사·간호사에 대한 존경·이해와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구조(야마가타현)
- 당노병 대책과 의료 관광 사업화(도쿠시마현)

마지막으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문제로서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지방의 역할 강화, 지방 의료·개호·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구조의 법제화, 현금 급부뿐만 아니라 서비스 급부를 통한 지역경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시책 발표



일본/도쿠시마현

이즈미 카몬 지사

도쿠시마현은 건강·의료 산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정하고 현의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된 시책은 ① ‘당뇨병 극복! <도쿠시마 건강·의료 클러스터> 형성’ (문부과학성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으로 채택되어 도쿠시마를 세계 수준의 당뇨병 연구개발 임상 거점화) ② ‘지역 의료 재생! <종합 메디컬존 구상> 추진’ (현립 중앙병원과 도쿠시마 대학병원의 일체화), ③ ‘선도적 지역 의료! <지역 활성화 특구> 활용’ (선도적 지역의료 활성화 종합특구 인정(2012/7)) ④ ‘도쿠시마에서 동아시아로! <건강·의료 산업>의 새로운 전개’ (도쿠시마가 개발한 당뇨병에 관한 서비스와 의료기기 등을 세계로 전개) 등이다.

동아시아는 많은 과제의 선진 지역이다. 당뇨병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과제에 대해 편치를 찬스로 바꾸는 과제 해결의 선진 모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서산시

김영제 기획실장

서산시는 인구 16만 5000명, 예산 6500억 원의 소도시로 텐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출생률은 인구 대체율을 밑도는 1.67명으로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감소, 사회 부담 과중 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고령화는 막대한 사회 보장비가 드는 반면, 저출산은 정책 지원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산시에서도 작년에 저출산 대책 전문 팀을 설치하여 저출산 종합대책(4분야, 31 테마) 추진 및 출산 지원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보면, 육아는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므로 행정이 시민과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출산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두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본/다자이후시

이노우에 야스히로 시장

다자이후시는 약 1,300년 전 규슈 전체를 통치하는 관청이 있었던 곳으로 한국 부여군은 자매 도시, 나라는 우호 도시이다.

‘삶의 보람과 존엄을 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와 교육의 마을’을 시의 10년 후 미래상으로 제정하고 마을 만들기 7가지 목표의 하나로 ‘건강하고 평온함이 깃든 복지 마을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다.

육아지원에 관해서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마을 만들기’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보육료 감면 제도 도입과 육아지원 센터 확충에 힘쓰고 있다.

고령 복지의 증진에 관해서는 커뮤니티 버스 ‘마호로바(살기 좋은 곳) 호’ 운행을 통한 생활부담 경감과 긴급통보장치 급부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건강한 고령자에서 치매 등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까지 모든 고령자의 존엄이 존중되고 가능한 한 정든 자택과 고향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니가타시

쓰카다 게이스케 부시장

니가타시는 ‘안심하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다. 조기·연장 보육, 유아 보육, 휴일 보육 및 병아 보육의 충실, 어린이 의료비 조성, 지역 육아지원 거점 정비 등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달성해 ‘육아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나, 출생률은 1.29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일본의 부부 조사 데이터를 보면, 이상적인 아이 수와 예정 아이 수에 0.5명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프랑스 등 유럽의 가족 수당액은 일본의 3~4 배로 아이가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에 임하고 있다. 또 3세대가 같이 살거나 가까운 데 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어 일본의 지자체 보육 서비스에도 이러한 요소를 가미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덴리시

미나미 게이사쿠 시장

덴리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모자 보건에 관해서는 불임 치료비 조성 사업, 임신부 건강진단, 조산사 방문 사업, 안녕하세요? 아기 방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육아 지원에 관해서는 출장 보육과 엄마·아이 교실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 중 ‘엄마·아이의 좋은 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은 덴리시의 독자적 시책으로 엄마들의 친구 만들기를 돕고 육아로 고민하는 엄마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육아지원 정보지 ‘쑥쑥 무럭무럭 통신’을 시내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생 백세 덴리 계획’ 사업으로서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키고 틈틈이 공부하여 자원봉사자로서 곤란한 상황에 있는 주민을 돕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카루가초

이케다 요시노리 부정(町)장

이카루가초에서는 종합 계획 중 ‘함께 살고 함께 자라는 마을’을 슬로건으로 아이 수를 늘려 고령화를 억제한다는 계획에 따라 안심하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 단독 사업으로서 일반 불임 치료비·불육 치료비 조성과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접종 비용 조성, 중학교 수료 전까지 의료비 무료화, 신생아 방문 지도와 지역 육아지원 센터 운영, 육아 서포터 육성 등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 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마을 단독 사업을 벌이는 데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또 아이 수 증가로 보육사 일손과 탁아소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는 사람·물건·예산의 확보 방안이 마을의 핵심 과제로 주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모더레이터 총괄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고령자 대책, 저출산 대책, 육아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이 중요한 과제로, 지자체의 고용 창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또 미야모토 교수님의 ‘날개의 사회보장’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날개를 부여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아시아형 사회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매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테마2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참가 지방정부	필리핀: 오로라주 한국: 충청남도 부여군 베트남: 푸토성, 푸토성 비엠펜시 일본: 교토부, 가가와현, 나라현, 나라현 고세시, 나라현 아스카무라
모더레이터	하쿠시마 하카루 나고야 국세국장

테마별 회합 결과 보고



하쿠시마 하카루 나고야 국세국장

세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징세 효율화, 체납 방지, 납세 의식 향상이다.

①징세 효율화

- 지자체 간 협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징세 체제 정비 (구체적 사례) 현 직원의 시읍면 파견, 징수 공동기구 설치 등
- IT 활용: 행정 효율화,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행정 조직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 (구체적 사례) 전자 신고 시스템, 인터넷 공매,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부여군) 등
- 징세 담당 인재 육성: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 (구체적 사례) 세무 전문직 신설, 현과 시읍면의 인사 교류를 통한 육성 등

②체납 방지

- 체납의 미연 방지: 신규 체납을 억제한다. (구체적 사례) 기한 내 납부 홍보, 지자체가 실시하는 입찰 참가 시 납세증명서 첨부 의무화, 다양한 납세 수단 확보(편의점 납부) 등
- 체납 정리: 대규모·악질 사안은 엄정하게 체납 처분하고 발생 직후 사안과 건수가 많은 소액 사안은 집중 전화 최고 시스템을 활용

③납세 의식 향상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한 홍보 실시 (구체적 사례) 부동산세 체납 해소 프로젝트(오로라주)와 조세 교육 추진
- ※수익에 응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주민 의식을 함양하고 행정측도 주민 시점에 선 친절·정중한 대응 및 세금 용도에 관한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

이상에 관해 국세 당국은 각 지역 레벨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제휴·협력하면서 동아시아 각국과도 세무 행정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또 세수 확보는 지방 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토 모토히로 교수의 보고를 보면 일본 지방세의 특징은 ①세목이 다양 ②법인 과세 의존이 높고 세수가 불안정 ③심한 지역 간 격차 ④과세 자주권 행사가 법인 과세에 치우쳐 있어 현재 상황으로서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인에 치우친 초과 과세(조세 수출)와 기업 우대 세제(조세 경쟁)가 서로 경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 분권 시대의 지방세제에는 세수 안정화·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법인 과세에서 소비 과세로 전환, 응익부담의 원칙에서 개인과세 기준을 확대, 경제 글로벌화에 대응해 법인 과세 의존에 대해 재검토하는 일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책 발표



필리핀/오로라주 CASTILLO, Bellaflor Angara 지사

오로라주는 총세입의 93%를 정부의 IRA(국내 세입 할당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세는 재원의 7%에 불과하다. 내가 주지사로 취임한 후, 지방세 징수를 재검토하고 곧바로 세에 관한 포괄적 주세 조례를 시행하여 대폭적인 세수 증가를 실현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수료·과징금 등의 세수화, 부동산 평가액 전면 개정, TV·라디오를 통한 주세 조례 홍보, '오로라주 부동산세 체납자 해소'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수가 늘면 그에 따라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과 주 정부가 세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본다.



베트남/푸토성 HOANG, Dan Mac 인민위원회 위원장

푸토성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 국내의 기업의 푸토성 내 사업·생산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또 사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인프라를 정비하고 특히 원격지 및 악조건 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토지 사용세를 감면하고 있다.

세무 행정 수속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체납자 감독의 질을 향상시켜 직무의 공평·경쟁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납세 신고 등 IT를 활용한 관리 대책에 힘쓰고 있다. 인적자원 및 조직 관리 면에서도 계속해서 세무 조직 관리를 개선하고 전문 인적자원을 확보해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가가와현 텐쿠모 도시오 부지사

가가와현은 재원 확보 및 세 부담 공평의 관점에서 현세의 징수·확보를 최대 중요 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개인 현민세 대책과 납세 창구 확대에 힘써 왔다.

먼저, 개인 현민세 대책으로 현과 시읍이 제휴한 '가가와 체납정리 추진기구'에 의한 체납 정리 강화와 사업소가 개인 주민세를 급료에서 공제하는 '특별 징수 제도'를 확대 실시했다. 한편, 과세 건수가 가장 많은 자동차세에 대한 편의점 납부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로 납부 등 납세 방법을 다양화했다. 현세 징수율이 개선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인력 확보이다. 그를 위해 자치대학교 징수 코스에 현 직원을 파견하거나 시읍 직원을 대상으로 현세 사무소에서 단기 실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교토부 나카노 유스케 총무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의 지방세 제도는 세원 이양으로 지방정부 세입의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확립하여 효과적·효율적인 세무 집행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토부는 부와 부내 시읍면의 세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토 지방세 기구'를 설립하여 2010년부터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구의 목적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하여 공평·공정한 세 업무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체납 정리 이외에 법인 관계세 과세 사무, 공동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정비, 구성 단체 직원 연수 등도 실시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새로운 과세 업무와 수납 업무의 공동화 추진, 업무 표준화·시스템 통일화 및 세 전문 직원 육성이다. 이들 과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다.



일본/고세시

히가시가와 유타카 시장

고세시는 2007년 9월 의회에서 ‘재정 비상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2008년도 결산 시 ‘조기 건전화 단체’로 지정되는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시세 징수율 향상을 통한 세수 확보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징세과와 별도로 ‘시세 기동 징수과’를 설립, 징수 담당 관리감에 ‘환경 경관 OB’를 배치, ‘징수·채납정리 기본방침’ 책정, 현에서 파견된 채납정리·전문직원과 타 시읍면의 징수 담당과로부터의 노하우 취득이다.

이러한 시책으로 환가처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채납 이월분 징수율이 상승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 직원의 사기도 진작되어 2011년도 결산에서 일반회계 흑자화를 달성했다. 향후에는 경기 악화, 고용 불안,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등 채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징수 강화를 지속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직원 사기의 유지·확보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모더레이터 총괄



햐쿠시마 하카루 나고야 국제국장

세금 과세와 징수의 애로점은 국가와 지방정부를 불문하고 공통된 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했다. 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공동기구 설립과 인재 교류를 실시하고 그를 통한 전문인재 육성의 중요성도 지적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을 효율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키는 등 납세 환경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또 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 행정 측의 세금 용도에 관한 설명책임 완수, 조세 교육의 중요성이 공통 인식으로 확인되었다.

오늘의 테마별 회합에서 제시된 논의를 수장 레벨에서 한층 깊게 논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테마3 ‘지역 진흥’

참가 지방정부	필리핀 : 오로라주 발레르시 한국 : 충청남도, 전라남도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일본 : 후쿠시마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기후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나라현, 미야기현 다가조시
모더레이터	하나오카 히로후미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도시국) 다나카 오사무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차장

테마별 회합 결과 보고



하나오카 히로후미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도시국)

지역 진흥이라는 매우 폭넓은 테마 중에서 관광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①관광 진흥을 위한 교통 대책 ②비 관광업 종사자의 협력 ③지역의 정체성·문화 활용 ④행정 기관의 역할 분담·제휴 등 4가지였다. 각각에 관한 각 지방 정부의 시책은 다음과 같다.

- ①관광 진흥을 위한 교통 대책: 편리성 추구하고 지역 분위기의 유지·확보로 매력을 향상 (구체적 시책)
- 파크 앤드 라이드(나라현)
 - 이와미 은광으로의 차량 진입을 배제하기 위한 우회도로 정비 등(시마네현)
 - 주차장 배제(도야마현), 주차요금을 비싸게 설정(말라카주) 등

- ②비 관광업 종사자의 협력: 지역 전체의 오토테나시(정성 어린 대접) (구체적 시책)

- 관광객을 위한 도로망 정비라는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주민 참가를 장려(발레르시)
- 세계유산 보호 활동에 처음부터 시민을 참여 시킴(말라카주) 등

- ③지역의 정체성·문화 활용: 지역 자원의 매력 향상 (구체적 시책)

- 식재료, 음식을 관광자원으로(이시카와현)
- ‘고지키’를 비롯해 신앙에 관한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관광 플래닝(시마네현)
- 나라현·와카야마현·미에현 등 기이 반도 3현의 협력(나라현) 등

- ④행정 기관의 역할 분담: 여행자 시선에 선 협력 촉진

정리하면,

- 교통 인프라라는 지역 재산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지역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 중요
 - 비 관광업자 여러분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 애착, 긍지를 가지게 하는 교육 활동이 필요
 - 종적 제휴(현과 시읍면)와 횡적 제휴(현과 현)에 있어 여행자 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등이 논의 속에서 확인되었다.

시책 발표



필리핀/발레르시 — ANGARA, Arturo Javier 시장

발레르시는 2020년까지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 참가를 유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에서는 자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관광국을 설치해 관광진흥 촉진 활동에 관여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관광 투자를 위한 환경 정비에 힘썼다. 또 TV, 라디오 홍보 등으로 시의 지명도를 높여 왔다. 풍부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환경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바랑가이(NGO)를 시의 파트너로 정하여 관광지 개발, 관광객 유치,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시책으로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호텔, 레스토랑 등 관광 관련 기업도 증가해 그에 필요한 고용자 수도 증가했다. 향후에는 관광 조례를 2012년 7월에 채택해 시 관광 평의회를 발족시켜 관광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 유치 조례도 성립시켜 비즈니스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말라카주 — HUSIN, Md Yunos 지방자치·환경위원회 의장

‘Historic City’ 말라카주를 방문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전체를 방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라카주는 풍부한 유적을 자랑한다.

경제 발전도 눈부시다. 2010년에는 경제 성장률 7%, 1인당 GDP 증가율 41.3%, 실업률 1%였다. 그 배경에는 안정된 정치 체제, 효율적인 행정 시책, 저렴한 사업 비용, 국제공항, 말라카 국제 트레이드센터(MITC) 설치, 매립지 확대를 통한 인프라 충실 등이 있다. 또 말레이시아와 ASEAN의 ‘입구’ 적 지리 요건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 자동차·항공기 부품 등 하이테크 산업, 역사 문화유산·레크리에이션·쇼핑 등을 목적으로 한 관광업이 활발하여 향후에도 이러한 산업에 중점을 두고 진흥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본/미에현 — 스즈키 에이케이 지사

미에현은 제조업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고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한 지역 진흥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에 라이프 이노베이션 종합 특구’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로 지역 진흥을 꾀하는 동시에 6개 유인 낙도를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해 신에너지를 도입하고 재해·염해에 강한 태양광 패널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 아일랜드 구상에 임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상하이와 방콕에 ‘비즈니스 서포트 데스크’를 설치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만의 ‘대일(台日) 산업 제휴 추진 오피스’와 산업 제휴 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 전개도 꾀하고 있다. 또 내년(신궁 시키넨센구: 신궁 건물을 다시 짓는 것), 후년(구마노 고도(熊野古道) 세계유산 등록 10주년)을 활용한 관광 소비액과 외국인 숙박자 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일본/와카야마현 — 니사카 요시노부 지사

와카야마현의 지역진흥 사례 연구로서 교야산을 소개한다. 교야산은 1,200년 전통의 기이 산지 영지와 참예도의 일부로서 2004년 7월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2009년 3월에는 미술쟁 그린가이드 일본의 3스타를 획득했다.

문화재 보호, 경관 보전, 인프라 정비, 관광 프로모션의 4개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3년 후 교야산 개창 1,200년을 향한 문화재 수복 공사
- ② 현과 교야초의 경관 조례에 따른 건물과 간판의 제한
- ③ 교통정체 대책으로 도로 정비와 교야산에 특화한 현 특유의 통역안내사 제도
- ④ 각지에서 교야산의 매력을 소개하는 관광 프로모션

후년에는 세계유산 등록 10주년, 2015년에 교야산 개창 1,200년을 맞이한다. 아시아 각지에서 많은 분이 교야산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다.



일본/시마네현

미조구치 젠베이 지사

시마네현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산업을 활성화하여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관광 진흥은 산업 진흥을 위한 확실한 해법이다. 시마네현에는 풍부한 자연과 전통문화, 역사 유산이 좋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들을 활용한 관광 진흥을 꾀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 최고(最古) 역사서인 '고지키' 편찬 1,3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로, 시마네현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신의 나라 시마네' 프로젝트를 2010년도에 개시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현민이 향토의 훌륭함을 재발견하는 것, 지역의 매력 창출과 오모테나시(정성 어린 대접)를 향상시키는 것, 신화를 관광 테마로 하여 신화를 브랜드화하는 것으로 '신화 엑스포 시마네' 및 기타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또 나라현, 미야자키현, 미에현 등 신화와 관련된 현들과 협력하여 일본 역사 문화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다가조시

기쿠치 겐지로 시장

다가조는 일찍이 도호쿠의 중심으로서 무쓰의 행정 관청이 있었던 곳으로 당시 중앙에서 다가조에 부임한 사람들이 노래를 읊은 '우타마쿠라' (와카(和歌)에 자주 읊어진 명소)이기도 하다.

'지역의 역사적 풍치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1월에 시행되어 '다가조시 역사적풍치 유지향상계획'도 인가를 받았다. 계획의 목적은 문화재 보호 행정과 마을 만들기 행정이 긴밀히 협조해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는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 마을 복구의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다.

구체적 시책으로서 다가조 남문 복원, 우타마쿠라 수경(修景), 주변 전선류의 지중화, 문화재 조사·보존 사업 및 경관 계획 책정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책정을 계기로 관 주도가 아닌 시민과의 협동으로 계획을 추진해 지역에 뿌리내린 사적 활용과 지역 문화 육성에 기여함으로써 역사와 생활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고 싶다.



한국/충청남도

남궁영 경제통상실장

한국은 1997년의 아시아통화위기로 경제적 위기에 빠졌으나, 그 후 중앙정부가 지역경제 진흥 계획을 제정·추진하여 충청남도도 지역진흥 경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산업 집적도가 높은 전자 정보, 첨단 분야, 농축산 바이오 분야, 자동차 부품을 4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2003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이 대학·기업·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저렴한 요금으로 연구개발 시설을 이용해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을 조성했다.

4대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관련 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향후는 신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노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더레이터 총괄



하나오카 히로후미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도시국)

지역 만들기에는 행정 측의 의사, 전체적인 구상과 방향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 커뮤니티를 확실하게 재구축하는 것은 물리적인 마을 만들기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나, 종래 커뮤니티와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청년층이 참가를 원하는 커뮤니티는 조금 다른 형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의 중심은 관광이었으나,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점과 공통되는 부분도 많아 매우 흥미로웠다.



다나카 오사무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차장

일본은 탈공업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앞으로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한 각 현과 시의 고민이 매우 크다고 느꼈다. 1975년경부터 1980년 전반까지 일본에서는 탈공업화 사회, 소프트화, 서비스화 진전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는 공업화의 절정기로 미국을 따라붙어 일부는 추월한 시대였기 때문에 좀처럼 탈공업화의 실감이 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거품 경제 발생·붕괴, 그 후 10~20년의 고통을 거치면서 일본은 탈공업화 사회 속에서 국가와 지역의 참모습을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느꼈다.

현재 국가 공무원의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스페셜리스트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도 이처럼 스페셜리스트를 어떻게 길러 낼지가 큰 과제가 될 거라는 인상을 받았다.

테마4 ‘인재 육성’

참가 지방정부	한국: 경기도, 충청남도 공주시 베트남: 투아티엔 후에성 일본: 시즈오카현, 돗토리현, 나라현, 나라현 나라시, 나라현 고료초
모더레이터	총무성지역력창조·녹색분권개혁어드바이저 시이카와 시노부 (전 자치재정국장, 전 지역력창조심의관(초대))

테마별 회합 결과 보고



시이카와 시노부 총무성지역력창조·녹색분권개혁어드바이저 (전 자치재정국장, 전 지역력창조심의관(초대))

3가지 기본 방향은 ①향후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②지역 전체의 활력과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인재 육성 ③지역경제를 진흥시킬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향후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일본에서는 지방 분권 개혁으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그 자체를 경영하는 인재, 글로벌(Global & Local)한 시야와 행동 능력을 갖춘 인재, 정부에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수법으로서 간부 승진에 필요한 조건과 계승해야 할 경험을 가시화하여 전략적·계획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 다른 지방공공단체, 해외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일도 중요하다.

한편 중국에서는 경제 중시의 흐름 속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의 필요로 한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②지역력 창조를 위한 인재육성

경제 글로벌화의 진행,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 커뮤니케이션 톨 고도화 등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 인재(=창조적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 개개인의 형적 네트워크 확대를 확대하여 다양한 세계와 폭넓게 교류하고 능력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 연구하여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③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인재 육성

대학과 제휴하여 젊은 힘을 도입하는 역학(域学) 제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퇴직 후 인생이 길어지고 있어, 퇴직 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국민 모두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그것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인재 확보가 어려울 때는 우선 외부에서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유력한 방법이 되고 있고 실천 예도 있었다.

일본과 중국은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는 조금 다르지만,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재 확보가 필요하고 그 인재는 스스로 육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 일본에서는 지방정부 직원의 육성과 지역 인재의 육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어 지역사회를 이끌 직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 건당사 시대부터 인재육성에는 교류가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창조적 인재는 이문화, 타업종과의 교류 속에서 태어나므로, 앞으로는 넓은 시야와 넓은 세계에서 인재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시책 발표



한국/경기도 박덕진 인재개발원 교육건설팀과장

경기도는 ‘공생 발전’을 인재 개발 전략의 테마로 설정하고 내부 조직이 협동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자신·타인·사회를 이끄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여 교육 컨설팅사업 ‘2gather 4ever’ (해당 기관에 특화한 인재육성 개발·제시 서비스), ‘나는 경기도’ (행정·경찰·소방이 연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상상 경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지식 특화 서비스)의 3개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군·공공기업 직원의 능력 개발을 꾀하고 있다.

향후에도 3개 사업을 발전시켜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베트남/투아티엔 후에성 NGO, Hoa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투아티엔 후에성은 향후 중앙 직할도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비해 공무원의 질과 양의 확보는 물론 서비스업·공업·농업 등 모든 분야의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의 인재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 공무원의 능력개발, 기업 경영자의 인재 개발, 경제지구·공업지구·과학기술·의료·사회 서비스 관련 관리직과 지도자의 능력 향상, 관광·재정·은행·우정·문화·의료·교육의 인재 육성 등에 대해 구체적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재육성에 대한 인식 향상, 인재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혁, 인재 개발 교육·연수, 노동시장 확보, 정부 예산과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조합한 자금 조달, 다른 성과 해외 인재육성 사업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시즈오카현 오스가 요시로 부지사

시즈오카현은 리더가 될 덕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높은 문화적 매력으로 사람들을 매료하는 ‘온리 원 현’을 만들기 위한 ‘부국유덕(富國有德)의 이상향 “후지의 나라” 만들기’를 현 행정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인재 육성 시책에는 시즈오카현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CDP)이 있다. 직원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 파악, 커리어 목표 설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연수 실시, 커리어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직무 배속 등 직원을 위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또 인재를 기르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이 일체가 되어 일하는 팀제(반제)를 도입하고 과장을 직장 연수 책임자로 평가하는 등 직장에서의 ‘직원 역할 가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 조직의 최대 자원은 인재이며, 인재를 육성·활용하는 것은 공통된 중요 테마이다.



일본/고료초 히라오카 히토시 정장(町長)

고료초는 퇴직 직원의 보충을 최대한 줄여 소수 정예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 때문에 주민 1인당 직원 수는 나라현 시읍면 중 가장 적다. 부족한 직원은 지원 스태프 제도, 민간 업무 위탁, 실버 인재 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직원 사감은 재정면에서 큰 효과를 가져왔다. 직원 모두가 마을을 경영한다는 의식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직원에게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지혜를 내라. 지혜가 없으면 땀을 흘려라. 지혜도 없고 땀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이곳을 떠나라.’라는 매우 엄격한 말을 건네고 있다. 좋은 것은 다른 지자체를 본받아 적극 실천하고 세계를 향해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더레이터 총괄



시िका와 시노부 총무성지역력창조·녹색분권개혁어드바이저
(전 자치재정국장, 전 지역력창조심의관(초대))

ICT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로 지방 분권이 진행되는 이 시대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횡적 제휴가 키워드이다.

저출산·고령화, 경제 밑바닥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하여 수고·기술·선의·자금을 제공하고 옛 지역사회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인간관계와 지역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는 그런 일에 공헌할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해 개인 이상의 실현과 조직 이상의 실현이 일치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작은 지자체일수록 인재 육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아무리 분권 시대라고 해도 현과 정부가 자체는 자기들과 관계없다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서로 보완해야 할 것은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

새로움을 창조하고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NPO, 지역 만들기 단체와 관공서의 교류는 물론,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회합에서 서로의 지견을 교환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일이다.

전체 회의



의장 보고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의 제]

- 신규 가맹 지방정부의 소개 승인
 - 중국: 산둥성 린이시, 산둥성 둥잉시
 -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 필리핀: 오로라주 발레르시
 - 베트남: 푸토성, 푸토성 비엠헌시
 - 일본: 이시카와현, 나가노현, 교토부,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교료초
- 사업 보고
 - 동아시아 서머 스쿨 'NARASIA 미래학원' 개최
 - 제3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테마별 회합 개최
 - 제3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 일본 아스펜 심포지엄 개최
-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나라 현장의 개정 수속
- 기타

신규 가맹 지방정부의 코멘트



베트남/푸토성 HOANG, Dan Mac 인민위원회 위원장

푸토성은 베트남의 발상지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신앙 투어리즘, 온천 투어리즘이 어울리는 지역으로 나라현과 같이 유형·무형 문화재가 풍부하다.

세계적 경제 침체와 심각한 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다면적 경제개발 협력을 위해 전적으로 협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보고하고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협력하는 것이 최근의 세계 동향이라고 본다. 따라서 평등 및 상호 이익의 Win-Win 원리에 근거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 단결·협력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위기관리를 강화하여 경제 성장과 전통문화를 보전·유지함과 동시에 국제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각 지방정부는 서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공통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필리핀/발레르시 ANGARA, Arturo Javier 시장

이번 회합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각 지방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으로 동아시아를 발전시키려는 기운을 느꼈다. 발레르시도 이 회합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이번 회합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이다. 우리는 동일한 과제를 갖고 있는 만큼 서로 노력해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곧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리더로서 그리고 참가자로서 신뢰와 파트너십을 갖고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모두 손을 마주 잡고 동아시아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



말레이시아/말라카주 HUSIN, Md Yunos 지방자치·환경위원회 의장

말레이시아를 대표해 이번 회합에 참가한 것과 각 회원 지방정부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2013년 4월 15일에 열리는 축제에 꼭 와주셨으면 한다. 필리핀, 한국, 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지자체 대표분들은 2, 3년 전부터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주실 예정이다. 또 6월부터 1개월간 열리는 국제 페스티벌에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다.

우리의 정성 어린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주시기 바란다.



대표 기자 회견



의장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2009년에 나라현을 포함한 19개 지방정부가 제창하여 헤이조 천도 1,300주년이 되는 2010년에 제1회 회합을 개최했다. 제3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7개국 64개 지방정부가 가맹하는 회합으로 발전했다.

이번 회합에서는 전 내각관방부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씨의 기조강연 ‘동아시아 정세와 지방정부의 대응’을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지역 진흥’, ‘인재 육성’ 등 4개 테마로 그룹 토의를 실시해 매우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회합의 특징은 정보와 과제를 공유하여 서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배우는 다이얼로그(의견교환, 대화)로, 그룹 토의를 통해 동아시아 지방정부가 많은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회합을 통해 서로가 ‘동아시아 과제 공동체’에서 ‘동아시아 학습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국/ 충청남도

남궁영

경제통상실장

회합에 참가하여 일본과 베트남 등 외국의 사례를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지역진흥, 세수 확보, 저출산·고령화 등은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필리핀/ 오로라주

CASTILLO Bellaflor Angara

지사

7개국이 결속하여 협력하고 이해한다면 강한 결속력을 지닌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회합을 계속하여 많은 커밋먼트를 완수해 ‘하나의 세계’ 건설을 아시아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리하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베트남/ 푸토성

HOANG, Dan Mac

인민위원회 위원장

회합에 참가하여 ‘국제 통합’의 흐름은 지자체에 있다고 느꼈다. 지자체의 발전 없이 나라의 발전은 없고, 나라의 발전 없이 지역의 안정도 없다. 회합에서 배운 내용을 지역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싶다.

또 회합에 참가하지 못한 지방정부와도 문화·전통 면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HUSIN, Md Yunus

지방자치·환경위원회 의장

회합에 참가하여 각 지방정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배운 내용을 주민 서비스에 반영해 나가고 싶다.



일본/ 미에현

스즈키 에이케이

지사

회합 내용이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되고 사례 발표도 알차게 이루어져 ‘배움의 환경’이 갖추어졌다. 본 회합에 참가하여 양자 회담과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매우 유익한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진흥의 그룹 토의에 참가했는데, 각 지방정부가 자신의 특색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인 외교가 아닌 ‘지자체의, 지자체에 의한, 지자체를 위한’ 외교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느꼈다.

중국의 각 지자체가 불참했으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설득하여 다음 기회에는 모든 지방정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일본/ 시마네현

미조구치 켄베이

지사

동아시아 주 정부, 현, 시 등 다양한 지자체가 참가하여 여러 문제에 관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본 회합은 매우 독특하며, 순조롭게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생각한다.

지역 진흥의 그룹 토의에 참가해 각 지방정부의 사례 보고를 듣는 가운데, 서로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과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좋은 참고가 되었다. 또 회합을 통해 각국이 우호를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느낌이다.

2012년 제3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에서는 작년 회합에서 호평을 받은 테마별 그룹 토의를 한층 발전시켜 지방정부 공동 과제로서 회원 지방정부의 설문조사를 거쳐 사무국인 나라현이 선정한 4개 테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지역진흥’, ‘인재육성’에 관한 그룹 토의를 실시했다.

회원 지방정부가 미리 토의에 참가할 테마를 선택한 후 테마별 행정 과제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벌였다.

먼저 올해 8/29, 9/11일에 열린 실무자 레벨 회합에서 2 테마씩 논의했다. 강사 기조강연과 회원 지방정부의 시책 보고를 기본으로, 강사 평가를 쉬으면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 매우 활발한 논의 속에 각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행정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테마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추출했다.

오늘 전체 회합에서는 먼저 (재)지방자치연구기구회장, 전 내각관방부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씨가 ‘동아시아 정세와 지방정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시하라 씨는 본 회합에서 채택한 4개 테마가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 성장률 저하 등 동아시아의 사회 정세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인식 아래 그에 대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행정과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책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가 심화되어 때때로 야기되는 중앙정부 레벨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중요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에 각 테마의 모더레이터로부터 실무자 레벨 회합의 토의결과 보고가 있었다.

오후에는 오전 기조강연과 실무자 레벨 회합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수장 클래스가 각 행정 과제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 논의를 더욱 심화했다.

아래와 같이 테마별 논의 결과(개요)를 크게 2가지로 정리·보고.

I. 지방정부의 구체적 시책(베스트 프랙티스)

II. 향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운용면, 제도면)

테마별로 논의에 대한 집약 방법이 약간 다르다. 그 이유는 실제 예를 열거하는 것이 알기 쉽다고 생각되는 테마와 어느 정도 집약 정리하는 것이 공통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테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논의에 따라 실무상 참조하기 쉬운 방법으로 논점을 정리했다.

아울러 본 의장 보고는 의장인 나라현지사와 사무국인 나라현이 집약한 것이나 정리하는 데 있어 테마별 그룹·디스커션 각 강사와 모더레이터 분들의 정확한 지도와 편달을 받았다.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테마 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I. 지방정부의 구체적 시책

1. 고령자 지원

(1)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 고령자가 정든 자택에서 각종 개호·의료,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나라현).
- 구급의료 키트 배포, 요원호자 대장 정비와 지도정보 시스템화(시모이치초).

(2) 개호서비스 체계 정비

- 개호서비스 시설 건설의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복리성·비영리성 개호서비스 기구에 각종 보조금과 장려금을 교부(장쑤성).

(3) 커뮤니티 버스를 통한 고령자 외출 지원, 청년에 의한 장보기(쇼핑) 지원

- 쇼핑센터가 운행하는 커뮤니티 버스에 시가 보조금을 거출. 현지 청년 NPO의 고령자 장보기(쇼핑)대행 사업을 보조(다자이후시).

2. 육아 지원

(1) 안심하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이른 아침·연장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충실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아동 클럽의 정비·운영 등→어린이 정보지에서 ‘육아하기 좋은 마을 1위’ 평가를 획득(니가타시).

(2) 모자 보건 사업과 육아 지원 사업을 충실화

- ‘안녕하세요 아기 방문 사업(유아 가정 방문)’ ‘만남의 광장(육아 상담, 출장 보육 등)’, ‘모자의 정을 심화하는 프로젝트’ 등을 실시(덴리시).

(3) 좋은 육아 환경 만들기·지원책 충실

- 일반 불임 치료비와 불육 치료비의 일부를 조성, 법정외 접종 비용을 일부 조성, 국가 기준을 웃도는 소인원수 학급 실시 등(이카루가초).

(4) 출산 장려금 급부로 출생률 향상

- 출생률에 수치화 목표를 설정. 출산 장려금을 통한 보편적인 출산 지원으로 출생률이 향상. 육아 지원과 현지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에 기여(서산시).

3. 의료 충실화

(1) 의사, 간호사 등 평생 서포트 프로그램

- 의사·간호사의 커리어 향상을 평생에 걸쳐 지원하는 ‘평생 서포트 프로그램’을 제시(야마가타현).

(2) 건강·의료 산업을 창출·육성

- 당뇨병 극복을 테마로 산학관이 일체가 된 시책(도쿠시마 건강·의료 클러스터 구상에 따른 세계 수준의 ‘당뇨병 연구개발 임상 거점’을 형성).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당뇨병 의료 관광 사업화 등(도쿠시마현).

Ⅱ .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제도 · 운용

1. 사회보장 서비스의 지방 역할 강화

고령자 세대에 대한 현금 급부 중심의 보장에서 현역 세대를 포함한 서비스 급부 중심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를 더욱 깊게 검토해야 함 (서비스 급부는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

2. 사회보장 서비스의 포괄적 제공

국가의 법제도는 종적 관계. 지역에서 국가의 법제도를 횡적 관계로 바꾸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구조를 법제화해야 함.

3. 사회보장 서비스를 활용한 지역 경제 발전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지역의 고용 ·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테마 2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I . 지방정부의 구체적 시책

1 . 징세 효율화

(1) 지자체 간 제휴

- 현 직원의 시읍면 파견, 징수 공동 기구 설치,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특별징수 실시확인서 등의 의무 부여 등을 실시.
- 지자체 간 문제의식을 공유해 '규모의 경제'를 살린 징세 체제를 구축해야 함.

(2) IT 기술 활용

- 전자 신고 시스템, 인터넷 공매 실시.
- 한국과 일본의 세제는 매우 비슷하나 현과 시읍면에서 법인·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이 있을 때는 법인·개인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 효과가 높지만 체납은 원래 1.8% 정도.
- 세무 행정 효율화, 납세자 편의 향상을 도모.
- 행정조직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
- IT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철저.

(3) 인재육성

- 세무 전문직 육성, 인사 교류를 통한 육성, 퇴직 직원 활용 등을 실시.
-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의 징수능력 향상이 불가결하나, 지금의 과제로서 징수직원 부족(소규모 단 체일수록 현저), 징수 노하우의 계승을 들 수 있다.
- 제도와 체제를 활용하기 위한 인재육성이 필요. 또 단체 간에 전문가를 초청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 체납 방지의 중요성

(1) 체납 미연 방지

- 기한 내 납부 홍보, 납세증명서 첨부, 특별징수 권장, 다양한 납세 수단 확보 등을 실시.

(2) 체납 정리 시책

- 대규모·악질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적확한 처분과 형사고발도 시야에 넣고 대응.
- 발생 직후의 체납 사안이나 건수가 많은 소액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전화 최고(催告) 시스템(콜센터)의 활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

3 . 납세 의식 향상

- 라디오·TV, 인터넷 홍보.
- 납세는 애국심의 발로라는 의식 양성이 중요(부동산세 체납자 해소 프로젝트).
- RATE(Run After Tax Evaders) 캠페인.
- 의무 교육을 중심으로 조세 교육을 실시.
- 수익에 응한 비용을 주민 스스로 부담한다는 의식을 고취해야 함.
- 행정에 필요한 의식 개혁으로서 세금 용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나, 주민측 시점에 선 정중한 대응, 조세교육 강화가 필요.

4 . 세수 확보

- 국내외 기업이 투자하기 쉽도록 법인세와 토지 사용세의 감면을 통해 세수 확보에 기여.

Ⅱ . 바람직한 지방세 제도 (사토 교수 기조강연에서)

1. 일본 지방세의 특징

다양한 세목, 법인 과세 의존, 세수 불안정, 지역간 격차, 법인 과세에 치우친 과세 자주권

2. 지방세제의 과제

(1) 경제에 좋지 않은 세제

→ 높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세 체계

(2) 과세 자주권의 실태

→ 법인에 치우친 초과 과세 (조세 수출)

→ 기업 우대 세제 (조세 경쟁)

→ 법정외세 신설

3. 분권 시대의 지방세제

→ 지방세의 원칙은 ‘응익부담 (応益負担)’

(1) 세수 안정화 · 지역간 격차 시정

• 법인 2 세의 의존도 인하

• 지방이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

(2) 주민에 대한 비용 의식 환기

• 과세 기준 확대 (개인에 대한 초과 과세)

(3) 글로벌화 대응

• 법인 과세의 실효 세율 인하

테마 3 ‘지역 진흥’

I . 지역진흥을 위한 구체적 시책

1. 관광 진흥을 위한 교통 대책

- 도로를 콘크리트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을 실현.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발레르시).
- 관광객의 주유(周遊)를 촉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정비 등의 하드 대책과 지역 정보 발신 등의 소프트 대책이 중요(시마네현).
- 파크 앤드 라이드, 순환 버스 도입(나라 공원·헤이조큐세키(나라현)).
- 지구 내를 통과하는 교통을 배제하기 위한 우회도로 정비와 셔틀 버스·주유 버스를 운행(이와미 은광(시마네현)), 주차장 배제(시라카와고(기후현)).
-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 요금을 높게 설정(말라카주).
- 노토 철도 폐선의 실패를 토대로 노토 공항의 진흥에 주력. 탑승률 달성을 위해 항공사와 협력금 제도를 도입, 지방공항 네트워크 정비를 위한 환승 할인 제도를 도입 등(노토 공항(이시카와현)).
- 재해 복구를 위해 12개 중점 프로젝트를 설정. 그중 도로 네트워크 구축이나 물류·관광을 지탱하는 공항, 항구 등의 복구와 기능 강화를 포함하여 검토 중(후쿠시마현).

2. 비 관광업으로부터의 협력

- 시 종합개발계획에 지역주민의 참가 촉진을 규정. 관광객의 도선(導線) 등을 마을과 함께 조사. 관광 투자 환경을 창조(감세, 면세, 토지이용 규제 등).
→관광 관련 기업이 대폭 증가, 고용 창출(발레르시).
-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으로 유지 가능한 관광 자원이 많음. 양호한 관계 구축을 위해 지역에 고등교육과 종교 프로그램을 제공(말라카주).
- (다도해의 특징을 살려) 각 섬의 고유 브랜드를 명소화하기 위해 갯벌 체험 등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광 상품을 기획·운영(전라남도).
- 시민과 협동하여 무전주화 사업과 경관계획 사업 등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다가조시).
→지역 전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행정과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일이 중요.

3. 지역 아이덴티티·문화 활용

- 식재료를 활용한 덮밥 개발. 전국 향토 덮밥을 모아 ‘전국 덮밥 서밋’을 개최. 과장이 ‘게 왕자’로 변장하여 선전.
→공항이 지역에 정착. ‘게 왕자’ 선전 효과도 있었다(이시카와현).
- ‘기후 보물’ 인정 프로그램 도입 등 지역의 자랑거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기후현).
- 고지키 편찬 1,3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관광자원을 브랜딩. 연고 있는 각 현과 제휴(시마네현).
- ‘해녀’ ‘닌자’ 등의 콘텐츠 활용. 신앙과 관광 진흥과의 조화를 도모(미에현).
- 지리적으로 연결된 와카야마현, 미에현, 나라현의 제휴(나라현). 3현의 지리적 제휴에 기대(시안시).

-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마을 만들기 기운이 고조. 비수기용 관광 상품을 새로 개발. 관광 자원을 발굴해 인력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역에 새로운 경제 순환이 발생했다(기후현).
- 전국 홍보·어필, 지역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과제.

4. 지역 산업 활용

- 관광 산업뿐 아니라 첨단기술, 관광 기술 분야 산업도 중요. 따라서 도로·공항 등의 인프라 정비를 비롯해 컨벤션 기능, 에너지, 질 높은 노동 인력 공급이 필요(말라카주).
- 전자정보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자동차부품 산업 등의 4대 산업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테크노파크를 축으로 한 산업 정책을 추진(충청남도).
- 제조업 이외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함. 의료복지 분야와 재생가능 에너지산업에 주목하고 있음(미에현).

5. 행정 기관의 역할 분담

- 재정 상황이 각 현, 시읍면의 역할 분담을 좌우하는 면이 있다. 또 도도부현과 시읍면의 규모를 고려한 마을 만들기가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후쿠이현).
- 현청 조직 개정으로 관광영업부를 창설. 모든 영업활동을 철저히 전개. 구체적 효과로서 현립 공룡박물관 입장자 수가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증가(후쿠이현).
- 현 주도로 지역마다 계획을 만들고 있으나 향후는 현과 시읍면의 역할 분담이 중요(야마나시현).
- 기키만요(記紀万葉: 고지키, 니혼쇼키, 만요슈)를 테마로 한 전국 각지의 개별 시책을 서로 연계시켜야 함(시마네현).

II . 향후의 지역진흥

- 지역 진흥의 기초로서 고속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가 중요.
-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 양성을 위해서도 지역의 아이덴티티와 긍지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지역의 자연·문화 교육’이 중요.
- 관광산업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제휴를 통한 지역진흥이라는 관점도 필요.
- 현과 시읍면 행정 기관의 역할 분담에 있어 각각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깊게 검토해야 한다.
- 기키만요라는 광역적 관광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복수 현의 제휴를 통한 시책이 필요.

테마 4 ‘인재 육성’

I . 구체적 시책

1. 지방정부의 향후 인재육성

(1) 일본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 ①지방정부마다 채용, ②같은 지방정부에서 근무, ③연공서열 승진, ④제너럴리스트로서 근무, ⑤큰 방에서 함께 근무, ⑥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시책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등의 특징이 있음.
- 지방 분권 후는 수장 아래에서 ①지방정부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 ②각 분야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 ③글로벌(Global & Local) 인재, ④리더십과 코디네이트 능력을 지닌 인재, ⑤정부에 대해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가 필요.
- 향후는 전략적·계획적 인재육성, 간부 승진에 필요한 조건과 계승해야 할 ‘경험’의 ‘가시화’, 대학에서 연구·면학 이외에 해외를 포함한 다른 조직에서의 경험 및 인맥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함.
- 시읍면이 자주적으로 인재육성에 임할 수 있는 광역 연수기관으로서 ‘고치 인재양성 광역연합’을 설립(고치현).
- 직원이 커리어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능력개발에 주력. 조직으로서 그것을 지원하는 시책(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을 육성하는 직장 환경을 만드는 ‘반(班) 제도’를 도입해 직책에 따른 역할을 ‘가시화’(시즈오카현).
- 직원 양성학원을 통해 자주적으로 지방자치법과 나라시 관광을 공부하는 그룹 등이 생겨났음(나라시).
- 직원 수 삭감에 따라 각 직원의 의식 개혁과 능력 향상을 피하기 위해 근무평정에 자학을 촉진하는 자기평가를 도입하고 평정 결과를 피드백하는 면담을 도입. 직원의 자기실현과 관리직의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고료초).

(2) 중국의 지방정부 인재육성

- 공무원은 정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려고 하나 공부한 것이 그대로 직무에 활용되지는 않는다. 간부 육성에도 비슷한 과제가 있다.(린이시).
- 기간산업에 관한 업무 능력과 실천 능력, 이론적인 면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육성(둥잉시).

(3) 한국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 도내 31개 시군 조직과 26개 공공기관을 대상. 각 도시의 특성과 직원의 요구를 반영. 경기도 전역을 공생 발전시키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효과적 공공기관 인재육성과 조직 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교육 컨설팅 사업을 실시. 이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인재육성이 곤란한 소규모 지자체 인재도 효과적으로 육성 중(경기도).

(4) 베트남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 타 성과 도시와 협조하여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유능한 관민 인재육성을 실시. 또 해외 유학도 활용하면서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 확보에 주력 중(후에성).

2. 지역력 창조를 위한 인재육성

(1) 지역력 향상을 위한 시책

- 헤이조 천도 1,300주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의식한 것은 관민 제휴. 이벤트는 계기·수단이며 지역 만 들기는 실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나라현).
- 자원봉사 학생들을 지역 주민이 따뜻하게 맞이한 것을 계기로 학생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특산물을 만드는 사례가 생겼다.(돗토리현).
- 향후는 아래와 같은 시책을 통해 새로운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1인당 생산액을 높 여야 한다.
 - ①지역의 특징을 살려 지역의 독자적 매력과 가치를 높이는 데 활약할 창조적 인재를 육성한다.
 - ②창조적 인재가 모이는 환경을 정비한다.
 - ③부가가치가 높고 소비자가 공감하는 아트와 이야기 등을 창출한다.
 - ④지역 특산품의 품질을 높여 지역 브랜드를 확립한다.

(2) 공무원의 위치를 재검토

- 이문화·타 업종 사람들과 적극 교류하고 ICT를 활용해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시대로.
- 현장에서 진지하게 실천 활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발상을 소중히 한다. 주민의 힘을 이 끌어내고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연구가 필요.

(3) 지역력 창조 인재육성의 과제

- 젊은 힘과 대학의 노하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역학(域学) 제휴가 필요하다.
- 고령자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력 창조에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 인재육성 구조가 필요.
- 퇴직 후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재직자 연수 등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함(특히 공무원 에 대해서).

II . 향후 인재육성

- 중국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이 최우선 과제. 따라서 ‘인재육성’ 보다 경제발전을 위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는 ‘인재 유치’가 초미의 과제.
- 일본, 중국, 한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는 다르지만 과제 해결을 위해 인재 확보가 필요하 다는 점에서는 일치.
- 일본에서는 지방정부 직원 육성과 지역 인재육성이 중복되고 있다(지방정부 직원으로 퇴직 후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 지방정부는 지역 인재의 보고. 지역 경영의 시점을 가지고 지역 전체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의식을 가 진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능력과 지향을 지닌 인재와 조직의 목표를 적절히 결합한 인재육 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전당사 시대부터 교류는 인재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창조적 인재는 이문화, 타 업종과의 교류 속에서 자라게 된다. ‘과제 공동체’ 이기도 한 동아시아의 인재육성을 위해 교류와 광역적 시책이 필 요.

11/5(월)

교겐 (狂言) 감상



기념품 증정



웰컴 파티



11/6(화)



기념 촬영

도쓰카와 오오도리 (전통 춤)



지사 초청 파티
(리셉션)

